구한말의 호위제도 고찰*

A Study on the Guard System in the Last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이 성 진**

<목 차>

Ⅰ. 서론
Ⅱ. 구한말 호위제도의 변천
Ⅲ. 대한제국 시대의 호위제도의 정립
Ⅳ. 결론

<요 약>

구한말의 호위제도 고찰은 개항 이후의 고종의 친정, 그리고 대한제국시대의 국내외적으로 위기에 처한 시대의 왕실호위제도에 대한 고찰이다. 그러나 이 시대의 호위제도를 이해하기 위하여 1863년 고종이 즉위하고 흥선대원군이 집정하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60년간의 세도정치로 인하여 문란해진 왕권을 강화하고 국방력 강화와 비변사를 폐지하며 종전의 삼군부로 부활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왕권 강화에 도움을 주었고 허약했던 중앙군을 강화하여 상비군을 늘리고 군기를 숙정하게 되었으며 신무기를 개발하는 등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대원군 실각 후 고종이 친정을 했다고 하나 대원군과 민비세력과의 불화로 인한 불안에 대처하여 궁궐 숙위를 전담하는 무위소를 설치한 이래 , 2군영 제도 실시의 친군영, 용호영의 부활, 시위대 친위대 등으로 이어진 갑오개혁까지의 호위체제의 변화는 법제적인 것이 아니었고 일본, 청국, 러시아 등 외세의 변화상황에 따라 주체적으로 힘을 다한 것이었다.

일본이 침략경쟁에서 승리한 이후 독무대가 되는 상황의 변화로 인해 대내의 국가수호에 대한 노력의 효과가 약화되었으며, 더욱이 갑오개혁 이후 경무청 내에 왕실 업무를 담당하는 경무서를 둔 것과 대한제국시대의 경무서를 경위원과 황궁경위국으로 개편되었던 제도역시 일본의 영향 아래 들어가게 되어 무력화되었다. 그러나 역경에서 이루어진 그 노력과 분투의 과정은 역사에 길이 빛날 것이다.

따라서 왕실을 호위하는 세력이 일본에 넘어간 대한 제국시대의 호위제도와 모든 상황전개는 제도가 아무리 완벽하게 수립되어 있을지라도 국력이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할 때 왕실의 호위제도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 구한말, 호위제도, 무위소, 친군영, 시위대

* 본 논문은 2009년도 호서대학교 재원으로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호서대학교 경호학과 교수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이 논문은 구한말 호위제도의 고찰로서 구한말의 개항 이후 한일합방으로 인한 국권을 상실할 때까지의 호위제도의 변천과 이에 대한 효과를 살펴 오늘날의 경호·경비의 학문 연구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개항 이후라고 하나 그 이전 10년간의 대원군 집정시대의 왕권 강화와 군사력 강화에 대한 언급이 없이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고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편의상 대원군 집정시대를 포함한다(김홍, 2003, 169-170).

역사가 있는 곳에는 세력 다툼이 있고 오랜 왕조시대를 거쳐 군사조직이나 통솔의 제도가 있어왔다. 고려를 이은 조선이 500년간 왕실을 수호해온 것은 대내의 지배체제를 굳건히 하고 외세에 대비하여 왔기 때문일 것이다. 구한말이라 하면 나라가 위기에 처하여 국권을 상실한 시대이므로 이 시대에 대한 역사적 연구는 오늘날의 국가발전에 가장 좋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경호·경비의 학문은 역사가 짧지만 오늘날 중요학문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현대사회의 특성과 국제사회의 상황 때문일 것이다.

대원군의 군제개혁은 한국역사 5000년 이래 획기적인 결단으로 인식된다. 그것은 대원군 집정 후 바로 쇄국의 문이 열리는 것은 좋았지만 열국이 침략을 다투는 마당이 되어 그 틈바구니 속에서 수많은 호위제도를 시행했지만 결국 망국의 지경에 까지 갔다는 결과가 역사를 연구하고 배우는 학도들에게 가슴 아픈 일로 남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날 이러한 역사를 연구할 수 있게 된 것은 나라가 그만큼 발전했기 때문이며 특히 80년대 이후 군제사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고 우수한 논문과 저서가 출판되어 그 일부인 왕실호위에 관한 역사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임을 감사해야 할 것이다.

1990년대 이후 김세은(1991)의 “개항 이후 군사제도 개편과정”, 임재찬(1992)의 “구한말 육군무관학교 연구”, 조재곤(1996)의 “대한제국기 군사정책과 군사기구의 운영”, 서인한(2000)의 “대한제국군사제도에 관한 연구”, 김홍(2003)의 “한국의 군제사“, ”한국의 군제사“ 등의 연구 자료를 통하여 경호·경비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고 이 논문을 작성하게 된 것이다. 10년간의 대원군의 집정이 남긴 대원군과 민비의 갈등으로 대원군이 실각함으로써 고종의 친정으로 이어지면서 왕실호위가 더욱 강화된 반면 대원군이 굳게 닫았던 쇄국의 문이 열리자 한반도에서의 서구열강 세력의 통상과 침략적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게 되어 국가수호에 대한 위기가 더욱 고조된 상황, 여기에 외세의

침략의도가 노골화되는 상황에서는 왕실과 왕이 다스리는 조정의 자주성 확립은 국가수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구한말의 상황에서 왕실호위에 대한 조정의 노력과 제도는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그 효력은 어떠했는지를 살피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현대경호연구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일이다.

2. 이론적 배경 및 역사적 상황

경호·경비의 역사적 연구에서 연구하는 시대적 상황이 오늘날과 다르기 때문에 그 연구에 있어서도 당시의 시대적 특성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제도에 대한 고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사회상과 아울러 당시의 삶에 대한 고려와 왕과 백성에 대한 위상을 재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일반 역사연구에 있어 당시의 문화와 지역상의 특성을 고려해야 함과 같은 이치이다. 이를 고려하기 위하여 당시의 세계정세와 국내의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물론 경제상황이나 나라의 규모, 그리고 대외세계의 상황도 개략적으로 소개할 필요가 있다.

고종시대의 세계정세는 제국주의가 팽창하고 있었으며 특히 동아시아는 서구식민지 개척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일본의 세력이 강해지고 중국의 세력이 무력화되어 청의 조정이 무너져가고 한족의 독립운동이 전개되었으며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유럽제국들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침략을 가속화하였다. 아메리카에서는 미국이 영토를 확장하기 위하여 알래스카를 매입하고 남북전쟁이 끝나면서 본격적인 대외정책을 펴고 있었다(박영규, 2006: 519).

이 때 조선의 국내 사정은 세도정치 60년 동안에 삼정이 문란하고 국가의 기강이 무너져 왕실의 권위는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어린 고종이 즉위하며 조대비의 훈령에 의하여 대원군의 집정으로 10년 동안 왕권 강화를 위하여 삼정을 바로 잡고 국방력 강화에 힘썼다. 그 밖에도 인재등용, 군기확립, 경복궁을 중건, 세제를 개혁하는 등으로 국정을 쇄신했으나, 과도한 세금정책과 천주교 학대, 서원철폐 등의 무리한 정책으로 반대파의 상소로 실각하게 되었다. 대원군이 실각한 후 고종의 친정시대를 맞이하나 쇄국에서 갑자기 개국되는 상황에서 열국이 다투어 침략해 들어옴으로써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었다. 10년 동안 그처럼 많은 개혁과 함께 강화시켰던 군사력을 뒷받침하는 제도가 대원군의 실각으로 일시에 무너지고, 그 외세의 각축이 일본, 청국, 러시아의 3국으로 압축되는 가운데 정권을 잡은 민비세력의 부패로 인하여 나라는 다시 외세에 의하여 갈팡질팡하게 되었다. 외세척결과 부패일소 및 민생, 민권을 부르짖고 일어난 동학운동은 관군과 마주쳐 패하게 되자 외세의 힘으로 난을 수습했지만 이는 청일전쟁의 도화선이 되었고 후에 청일·러일 전쟁의 결과로 일본의 힘이 더욱 강하게 미치게 함으로써 일본의 노골적인 개입이 심해지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중들은 개화와 수구의 와중에서 갈 바를 모르고 국력이 소진되고 있었다.

국내적으로 대원군과 민비의 갈등이 심했고 대외적으로는 청국, 일본. 러시아의 3국이 서로 조선군을 자국의 영향력 하에 두어 유사시 연합세력으로 활용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었다. 그 결과 처음에 청국과 일본이 대립되었고, 청국이 패배한 후로는 러·일 양국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균점하기 위해 무수한 협상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독자적으로 군의 발전을 도모하지 못한 약소국이 얼마나 위험하게 국제정치상에 노정(露呈)되었는지 알 수 있다(심헌용, 2005: 17-18).

3. 연구의 방법 및 자료

이 논문의 연구는 문헌 연구의 방법으로 진행시켜 나갔다. 구한말에 있어서 그 상황을 고려하고 핵심 되는 내용을 주로 언급하면서 왕실과 황실의 여건에 맞추어 사료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군제사 자료 인용은 본문을 그대로 직접 인용하지 않고 간접인용을 함으로써 필자의 의견 이 그 글에 함축되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인용의 표시는 내각주를 달았다. 인용에 있어서는 될수록 여러 저서나 논문을 두루 검토했고 제각기 상위한 점들을 비판하고 나름대로의 판단을 토대로 하여 기술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논문에서 주로 고찰한 대상은

1) 대원군의 개혁정책과 함께 이루어졌던 군제개혁
2) 고종의 친정이후 설치했던 무위소, 무위영, 친군용호영, 시위대, 친위대의 성격
3) 을미개혁 후 호위의 방향과 을사조약 이후의 경위원과 황궁경위국의 역할
4) 청일·러일전쟁 이후 일본의 간섭을 벗어나기 위한 고종의 노력 등이다.

연구의 역사적 자료로서 차문섭(1982)의 구한말군사제도의 변천, 조재곤(1996)의 대한제국기 군사정책과 군사기구의 운영, 서인한(2000)의 대한제국 군사제도, 김홍(2003)의 한국군제사, 양상현(2006)의 대한제국의 군제개편과 군사예산 운영, 심헌용(2005)의 한말 군 근대화 연구 등이 있다. 이들 자료는 모두 군사제도와 관련된 문헌이지만 당시의 호위가 군사적인 면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참고가 되었다.

이 중 서인한의 대한제국 군사제도에는 서론에 대한제국 군제연구의 민족사적 입장을 상세히 밝히는 가운데, “현재 국군은 대한제국군⇨의병⇨독립군으로 승계되어 오늘날의 민족군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이 조동걸에 의해 제기되어 대한제국군존재가치를 새롭게 인식시켜 주었다(서인한, 2000: 16)는 점에서 역사연구의 가치를 부여받고 있다.

Ⅱ. 구한말 호위제도의 변천

1. 대원군의 군제개혁과 강병책

나약한 왕 철종이 승하하고 1863년 고종이 즉위하여 대원군이 집정하게 되었을 때는 그 이전 60년간의 세도정치로 말미암아 삼정이 문란하고 특히 군정의 문란이 극에 이르러 있었다. 대원군은 왕권강화에 목표를 두고 국내정치에서 이룬 업적은 한국사에서 다음 7가지 제목으로 서술되고 있다(진단학회, 1980: 208-218).

1) 삼정개혁과 인재등용.
2) 서원철폐와 지방 부패 일신.
3) 경복궁 중건으로 왕권 강화.
4) 재정대책과 세제개혁으로 왕실재정 확보.
5) 국방대책과 조세개혁.
6) 편찬사업과 풍속개량.
7) 서교탄압으로 국제적 충돌.

당시에 대원군이 권력의 중앙에 서 있기는 하였으나 7가지 모두를 자신의 독단으로 시행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자신에게 힘을 실어준 조대비의 뜻이 많이 담긴 것은 3)과 7)이라는 사실이 한국사에 서술되어 있으며 나머지도 개혁세력들이 올린 상소에 의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왕권강화에 대한 생각과 국방력 강화를 위한 모든 노력과 군제개혁은 본인의 뜻이 많이 담겼으리라 본다. 그 이유는 자신의 야인생활에서 받은 설움과 왕권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방침이 국방력강화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삶의 과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대원군은 비변사를 폐지하고 삼군부를 다시 설치함으로써 의정부 기능을 강화하여 정치운용의 정상화를 꾀한 것이었다. 대원군 집정초의 중앙군은 매우 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대원군은 우선 군기숙정과 군내부적 정비작업에 착수하여 무기를 보수하고 훈련도감을 정비 강화했다.

그는 군비강화에 힘을 써 정병 위주의 병력증강과 군기보수 및 제작, 재정의 확보에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조선이 채 군사를 동원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병인양요와 신미양요가 일어나 조정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 대원군은 척화비를 세우고 쇄국정책을 써서 외세를 막아보려 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군을 강화하는 개혁을 단행하였다(심헌용, 2005: 21-47). 대원군의 이러한 정치에 대한 공적과 함께 인간적인 무게를 실어주었으나 반면에 나라가 발전하지 못한 책임을 그의 쇄국정치에 두고 있는 입씨름이 무성하여 그를

격하시키려는 무리가 또한 많았고, 실제로 그가 실각한 이후 민비와의 불화가 원인이 되어 반대파의 의해 정권에서 축출되었던 것이라는 말을 믿는 사람도 많으나 필자가 들어본 바로는 그의 쇄국정책 때문에 나라가 발전하지 못했다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이에 대하여 필자는 이러한 문제점이 국사교육의 부족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다.

2. 고종의 친정과 호위제도의 변화

고종이 친정하면서 타율적인 개항이 되고, 조선은 세계열강의 각축장이 되었으며, 군제의 변화도 외세의 틈바구니에서 갈팡질팡하는 사이에 많은 변화가 지리멸렬하게 이어져갔다(서인한, 2003: 13). 이러한 서인한의 지적은 고종의 통치가 얼마나 힘든 시대였으며 이를 극복하려는 고종의 의지가 강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고종 즉위 이후의 호위 조직은 무위소(武衛所)·무위영(武衛營)·친군용호영(親軍龍虎營)·시위대(侍衛隊)·친위대(親衛隊) 등으로 조금씩 다양해지는 이유도 고종의 불안감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된다.

무위소(武衛所)의 설치는 고종의 친정이 시작됨으로써 닥쳐오는 여러 가지 위험을 막기 위하여 제일 먼저 취한 왕실호위의 강화책임을 다음의 변화가 잘 말해주고 있다. 무위소(武衛所)의 지휘관은 무위도총사(武衛都統使)라 했고, 1874(고종 11)년 5월부터 400명 수준에 불과한 왕실 파수병을 서서히 증원하였고 그러다가 7월 4일 마침내 무위소라는 독립된 군영을 창설하였는데 이것도 처음 계획은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 총융청 그리고 용호영 등 기존 중앙 5개 군영과 북한산성에 위치한 무예청 병력을 포함하여 총 4초 400명의 병력을 차출 하였다. 이들을 처음에 훈련도감의 지휘를 받다가 무위소로 정식 창설된 것이었다.

1879(고종 16)년 8월에는 총융청에 속해 있던 북한산성의 경리청까지 추가로 이관 받는 조치를 취했다(심헌용, 2005: 42-43). 대원군의 실권 이후 곧 고종의 친정으로 이어졌으나 대원군과 민비와의 세력다툼은 표면화되고 노골화되었다. 이 시기에 민씨 세력이 정권의 표면에 드러났다. 그러나 새로운 군영을 설치한다는 것은 재정상 무리가 있었다. 무예청과 훈련도감의 병사를 뽑아 왕실호위로 담당하게 한 것이 바로 무위소의 설치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의 의도는 물론 대원군 섭정이 끝난 뒤의 대원군 세력이 잔존하여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신변이 위태함을 자각한 까닭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당시에는 국가의 위기가 외세의 침략이었지만 이와 못지않게 대내의 수구세력과 개화세력의 대립이 국가의 힘을 분산시키고 있다는 것이 또한 문제였다. 또 당시에는 물산(物産)이 빈약한데다가 교통이 불편하여 흉년이나 재해가 일어나기만 해도 굶주리는 백성이 많았으며 나라에 정변이나 조그마한 변란이 일어나도 백성들은 물론이요, 이에 비례하여 왕실의 경제상황도 좋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대원군 시대에 두 차례의 양요로 해안의 선박 출입이

통제되어 곡가가 폭등하고 영세민의 생계가 어려웠던 일이 있었음을 보아 알 수 있다(유홍렬, 1969: 98).

그 이후 왕실호위병은 무위소의 소속이 되고 무위도통사의 지휘를 받게 되었다(김홍, 2003: 171). 이렇게 각 부대에서 병사를 차출한 것은 물론 훈련된 병사를 뽑기 위한 이유도 작용했으나 무엇보다도 국고가 빈약한 때에 나라를 지켜야 하겠다는 고종의 의지가 강했음을 알게 한다. 무위소의 병사들이 특별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더욱 신중을 기했음을 알 수 있다. 임오군란 이후 대원군이 재집권했을 때 무위소의 연장이었던 무위영을 폐지시켰던 일로 보면 대내의 정적을 두려워하던 당시의 정치상황을 알 수 있다(신석호 외 8인, 1969: 194).

무위소 병력은 무위소가 무위영으로 확대 개편되기 직전인 1880(고종 17)년에 총병력 4,399명에 이르는 큰 부대로 커졌다. 이들 중 장교가 356명, 장관이 32명이었다. 그 외 병사는 3,499명이었는데 유급(有給) 군인이 2,590명이었고 특수병사 일부를 제외한 정병만 계산해도 2,317명에 달하는 병력규모를 갖추게 되었다(배항섭, 1999: 148). 이들 무위소 병력은 조선후기 최대 호위병력 규모로 커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군사기구가 설치됨에 따라 기존 군영이 새로이 정비되었다.

무위영(武衛營)은 무위소의 연장으로 왕실을 지키게 하였고 장어영은 수도방위의 군영이었다. 이러한 제도는 고종이 친정하면서 친위 및 수도방위군을 강화한 것이었는데 임오군란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5군영제로 복구되었다. 당시의 상황이 일본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임오군란의 발발로 인하여 잠시 대원군의 세력이 커졌음을 알 수 있다. 무위소의 규모는 나중에 용호영의 500명까지 포함하여 약 2,000여명에 달했고 그 군대에 대한 대우도 좋았으며, 그 지휘권자인 무위도통사는 모든 군사기관을 총괄하는 방대한 권한도 갖게 되었다.

국왕의 호위대인 용호영은 1884(고종 21)년 8월 29일 금위영・어영청・총융청과 함께 친군 4영에 분할 이속되어 해산되자 다음해 3월 6일에 마군소(馬軍所)로 하여금 용호영의 칭호로서 왕의 호위에 관한 모든 사항을 거행하게 함으로써 용호영이 부활되었다. 마군소에 배치된 인원은 금군별장 1명, 기사별장 2명, 각번장 12명, 가전가후 100명, 금군 550명, 기사 300명, 집사 27명, 별무사 18명, 마의 2명, 주여수 40명, 뇌자 14명, 순령수 11명, 표하군 및 유료군 120명 등이었다(장철원, 2003: 102). 용호영은 왕을 모시는 금군으로 마군소 규모로는 부족하였기 때문에 그 강화책의 일환으로 겸임참하선전관 14명, 부장 15명, 수문장 18명, 어전일산사지 7명, 용전일산사지 6명, 마의 2명, 별무사 12명, 용기봉지 15명, 월도차비 16명을 증가시켰다. 이리하여 용호영・총어영・경리청 등을 모두 친군용호영(親軍龍虎營)으로 부르게 되었다.

이에 반하여 시위대(侍衛隊)가 만들어진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고종이 얼마나 열강의 가장 강력한 나라인 일본 세력의 위험을 느끼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일본의 세력이 강해지자 왕실의 호위를 자기들이 맡으려 하였는데, 고종은 호의적인 미국인 군사교관에게 왕실 호위를 맡기고 싶어 했으며, 왕실을 점령한 일본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미국과 러시아의 세력을 끌어들이려 하였다. 그러한 문제는 직접 군대문제에도 영향을 주었으니 일본 측이 1895년 5월 3일 왕실의 호위를 맡고 있는 우리병사들을 훈련대로 대치하려 하였으나, 러시아와 미국공사가 직접 항의함으로써 실패로 돌아갔다. 이처럼 조선에서 일본의 입장이 난처해지자 을미개혁을 추진했던 이노우에 공사도 자기의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갔음을 인정하고 무인 출신에게 공사직을 맡기고 일본으로 돌아갔다.

그 후 왕실호위병을 재편성하게 되었다. 이것은 전부터 미국인 군사교관들에 의하여 훈련을 받았던 구식 병사들로 재편성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1895(고종 32)년 5월 25일 조선정부는 훈련대와 신설대 이외에 시위대를 설치하였는데 시위대는 신설대 소속 공병 병력에서 2개 대대로 편성하였다. 이들은 양번제로 3일씩 왕실을 교대로 호위임무를 수행하였다. 삼국간섭 이후 고종은 일본의 영향력이 퇴조한 틈을 이용하여, 믿을 수 없는 훈련대를 대신하여 왕실을 호위할 새로운 친위부대를 필요로 하였다. 일본 측이 왕실호위를 훈련대에 맡기려 하였으나 러시아와 미국 공사들이 직접 항의를 제기하여 일본의 태도를 좌절시켰다(정구복, 1977: 357).

따라서 1개 연대로 편성된 시위대는 2개 중대로 그리고 1개 중대는 3개 소대로 이루어져 훈련대와 조직은 동일하다. 그 후 국왕의 호위병을 일본인이 교육시키게 했으며, 일본인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훈련대로 교체시킴으로써 왕실의 민비와 러시아 세력과의 접촉을 견제하려 했다. 이에 러시아공사와 미국공사는 일본공사관을 방문하여 일본 측의 왕실호위병 교체 음모를 문책함으로써 그해 7월말에는 정부 내에서는 일본의 영향력이 위축되고 있었다. 이 무렵 정부에서는 일본인이 교육시키던 훈련대 2개 대대를 해체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반면에 일본공사관은 이와 같은 훈련대 해산 설을 이용하여 8월 20일 일본의 수비대원과 불량배들이 훈련대와 합세하여 왕실을 침입하여 민비를 시해하였다. 이른바 을미사변이었다.

그리고 8월 22일 시위대대를 폐지하고 시위 1대대는 훈련 1대대에, 시위 2대대는 훈련 2대대에 각각 편입시켰다(장철원, 2003: 104). 1896(건양 1)년 10월 러시아 참모대령이 2명의 장교와 군의관 및 하사관 10명을 거느리고 서울에 도착한 때부터 중앙군은 러시아식으로 개편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위대의 편성은 고종이 아관(俄館)에서 덕수궁으로 환어(還御)한 이후의 일이지만 이들의 임무가 왕실호위였기 때문에 고종은 이들이 호위에 의하여 환어가 가능했던 것이다. 1897년 1월 친위대 5개 대대로부터 하사관과 사병 800명을 선발하고 그 해 2월 8일까지 추가 선발하여 1,070명을 뽑아 200명씩 5개 중대를 1개 시위대대로 편성하였다. 아관에서 돌아온 고종은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독립협회 등의 강력한 뒷받침에 힘입어 근대적 제도에 대한 조치를 선포하고, 군통수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원수부(元帥

府)를 설치하였다(서인한, 2000: 193).

시위대는 그 후 친위대와 함께 러시아 세력이 물러가는 러일전쟁 당시까지 존속되었다. 1882(고종 19)년 6월의 임오군란은 그 직접적인 원인이 구식군대의 반란이었으나, 그 근본 원인은 조선정부의 재정적 궁핍과 부패 및 개화에 대한 수구 세력의 반동이었다. 여기에 민중의 감정이 촉발하여 관아를 습격하고 왕실까지 침입하여 민경호 등을 타살하고 위해가 왕권에게까지 미칠 형편이 되자 조정에서는 무위영, 선혜청 등 관련자들을 파직시키고 무위영을 훈련도감으로 환원시켰다. 대원군이 다시 권력의 표면에 나서 사태수습을 하고 이전의 제도가 복귀되고 안정되는 듯 했으나 죽었다고 장례까지 치룬 민비가 숨어 있다가 청군과 연락하며 청군이 진군해 오니 대원군은 텐진으로 납치되고 청군이 정국을 간섭하여 대원군에 의해 복구되었던 군사제도는 청국 식으로 개편되기 시작하였다. 일국의 운명이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집안싸움에 말려들었다.

1884(고종 21)년에 청군에 의해 신건친군영이 발족되고, 친군좌영·우영·전영·후영 등을 조직하여 신민 친군 4명이 만들어졌다. 금위영과 어영청은 1영으로 합하여 친군별영이라 부르게 되었다. 중앙군의 4영 체제는 왕실호위까지 맡아 금군의 약화를 가져와 이의 강화책으로 친군용호영을 신설하고 군영을 지휘하기 위하여 사관을 양성한 것이 1898(고종 25)년의 연무공원이다. 그러나 연무공원 학군들은 무성의와 태만, 조선정부의 재정 곤란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1894(고종 31)년 일본군이 청군을 공격하기에 앞서 연무공원 학도와 친위군의 신무기를 약탈함으로써 연무공원의 기능이 상실되었다.

개항 이후 1894(고종 31)년의 갑오개혁까지의 군제와 어울러 호위제도의 개혁이란 고종의 반대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했고, 항구적인 조직이나 대책이라기보다는 외세에 의존하려는 것이어서 오히려 외세개입의 여건을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도 권좌에서 물러난 대원군을 등장시켰던 일인들의 수완이 놀랍다. 어쨌든 고종의 무한한 노력은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나라의 운명이 더욱 위태로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Ⅲ. 대한제국 시대의 호위제도의 정립

1894(고종 31)년에 일본은 청일전쟁을 일으키고 전세가 일본군에게 유리하게 되자 일사천리로 모든 개혁을 시작하였다. 이때 군제와 개혁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지금까지의 병조를 군무아문으로 개칭하고, 육군과 해군의 군청을 통할해 군인·군속을 감독하며 여러 부서를 통합(심헌용, 2005: 178-183)한 사실을 통하여 고종은 나라의 위기가 임박하고

있음을 감지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갑오개혁에서 중앙군이 청국 방식이었다고 하여 친군용호영을 통위영으로 이속시키는 동시에 각 영 장수의 관직을 없애버렸으니 군사들은 지휘관을 잃어버려 사실상 친군영체제는 무너져 버린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일본의 본격적 군제개혁은 1895년 이른바 을미개혁 때부터였다. 새로 부임해 온 이노우에 공사는 “병권을 대군주에게 속하게 하여 명령계통을 체계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1896년에는 군부아문을 군부로 개칭하면서 직제를 공포하였다. 그 후 1895년 을미개혁에서 훈련대, 신설대, 시위대 등으로 그 체제가 정비되었다. 훈련대는 1895년 을미개혁에서 훈련대에 필요한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훈련대 사관양성소를 설치한 것이었고(김홍, 2003: 183), 신설대는 훈련대에 편입된 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군사로 신설대 12대에 4,850여명이 편성되었다. 사실 신설대는 구(舊)친군영군대의 구제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 대우 면에 있어서도 출병할 때만 훈련대와 같은 대우를 받았다. 이때 시위대는 왕실을 호위한다는 명목으로 훈련대로 편성되었으나, 이는 일제의 압력에 의한 편제였기 때문에 고종은 이들에게 자신의 호위를 맡기는 것을 꺼려하였음은 당연한 상황이었다. 때마침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견제하려는 러・독・불 삼국 간섭이 있는 기회를 틈타 정부는 믿을 수 있는 왕실호위부대를 모색하였는데 이것이 시위대였다(심헌용, 2005: 193-195).

1895(고종 32)년에 연병 2개 대대로 편성하고 군부대신 감독 하에 왕실호위를 담당하게 하였으며, 이들은 양 번으로 나누어 3일마다 교대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본이 이 해 8월에 일본인 수비대원과 일본인 불량배들이 을미사변을 일으켰을 때 이에 협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위대를 해산시키고 말았다. 그리고 해산된 시위대를 훈련대에 편입하여 훈련하도록 한 조치가 있었다. 그 이후 훈련대에는 일본군의 영향력이 크게 미쳤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을미사변 이후 민비시해에 대한 국민여론이 빗발치면서 일제에 대한 증오가 팽배하였다. 이 여론을 무마하기 위하여 김홍집 내각은 훈련대를 해산하고 육군편제 강령을 발표했는데, 육군을 친위대와 진위대로 나누고 친위대로 하여금 왕성수비를 전담케 하고, 진위대는 지방군으로 지방 진무와 변경 수비를 전담케 하였다. 당시 친위대의 수는 약 1,700명에 불과하여 수도방위 능력이 부족하였다.

1896(건양 1)년에 친위대대 공병으로 편성된 친위 제3대대를 편성했다. 같은 해에 공병대의 군사로 친위 4대대와 5대대를 편성하여 친위연대를 조직했다. 각 중대는 150명으로 4개 중대가 1개 대대를 구성하는 5개 대대에 약 300여명 규모의 군사력을 갖추었다. 이와 같은 군사 편제는 아관파천 중에 이루어졌으나, 일본군의 영향 하에 있었으므로 실용성에서 뿐만 아니라 재편성이 불가피했다. 고종이 아관에 있는 동안 러시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는데 1896년에 러시아 참모대령 프티아타가 중위・소위 3명과 부사관 3명을 거느리고 서울에 도착할 때부터 중앙군은 러시아의 영향 아래 개편되었다. 친러 내각은 친위대 5개

대대로부터 하사와 사병 800명을 선발하기 시작하여 1897(광무 1)년까지 1,070명으로 추가 선발하고, 3월에는 이를 시위대라 칭했다.

이 시위대는 앞서 미국교관에 의한 시위대와 그 이름이 같으나 하나는 미국의 영향, 하나는 러시아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그 임무는 다 같이 왕실시위대였다는 점으로 보아 그 궤를 같이 하여 시위대의 중복 설치라 할 수 있다. 이 시위대는 고종이 아관에서 덕수궁으로 환어할 때까지 호위하였고, 러시아가 물러갈 때까지 그 영향 아래 있었다. 그 편제로 러시아식 군편제로 4개 소대를 1개 중대로, 5개 중대를 1개 대대로서 지방에 확산되어 대한제국 군제의 기본 골격이 되었다. 이로써 중앙군은 수도방위를 전담하는 친위대와 왕실을 직접 호위하고 시위대의 두 갈래가 되었다.

조선정부는 대한제국이 출발한 1895년에 신식으로 바뀐 군대를 지휘할 유능한 초급장교의 양성이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마침내 1896년 부관학교 교관 제도를 반포하였다. 그리고 중앙군을 더욱 강화하는데 주력하였다. 시위대가 증강됨에 따라 수도방어의 책임을 지고 있던 친위대도 상대적으로 시위대 편제에 의하여 강화되었다. 1898(광무 2)년에 친위대도 시위대 편제에 따라 친위연대로 개편되고, 시위연대에 포병대대가 증설되던 1900년 무렵에는 이에 공병 1개 중대나 치중병 1개 중대가 증설 배속되었으며, 이들은 각각 3개 소대로 편제되어 있었다.

친위대(親衛隊)는 1895년 8월 20일에 있었던 을미사변 이후 김홍집 내각이 일본인이 조직한 훈련대를 폐지하고, 칙령(勅令) 제170호로 육군편제강령을 반포하여 친위군과 진위군으로 양분되어 친위군은 왕실에 주둔시켜 왕실호위를 전담하였다. 친위군과 진위군의 전술단위를 대대로 하여 당일로 서울에 친위 1대대와 2대대를 조직 편성하고 친위 1대대장에는 참령 이범래를, 제2대대장에는 참령 이진호를 임명하고, 이어 평양부와 전주부에 각각 진위 1개 대대를 조직하였다. 친위는 1개 대대 총원은 880명에 장교가 85명이었고, 1896년에는 공병대 6대대 중에서 건강한 자를 선발하여 친위 제3대대를 편성하였고, 3월 4일에는 친위 제4대대, 제5대대가 편성됨으로써 이를 합하여 친위 연대를 편성하게 되었다. 1896년 1월에 건양이라는 새 연호를 쓰고, 군제를 변경하여 종래의 훈련대와 시위대를 합쳐 중앙에 친위대 2개 대대, 지방에는 평양과 전주에 각각 진위대 1개 대대를 두었다(변태섭, 2001: 403).

호위대는 친위대 병사 가운데 건강하고 충실한 자를 뽑아 충당되었기 때문에 친위대의 수가 자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었으니 이때부터 친위대는 170명이 1개 중대로 편제되었으며, 1개 대대병력은 680명으로 줄었다. 이로써 중앙군은 수도방위의 친위대와 왕실호위의 시위대의 두 갈래로 분류되었다. 또 그 조직편제와 훈련은 모두 러시아식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또 1897년 3월에는 친위 각 대대에 러시아식의 기예를 가르치고 익숙한 자를 선발하여 하급부대에 지휘자로 배치하기도 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에 이미 시위대는 1개

대대가 더 편성되었고 중앙의 친위 5개 대대 가운데 친위대로 선발되고 남은 군사를 시위대 편제에 따라 1, 2, 3친위대로 재편성되었으며, 이와 같은 러시아식 편제와 훈련, 교육은 지방군인 지방대, 진위대에도 실시되었다(육군본부, 1968: 377).

일본의 침략행위에는 항상 열강의 견제가 팽팽히 맞섰다. 일본에 대한 적개심은 날로 더해가서 아관 파천 이후 대한제국의 선포는 시해된 왕비의 국장준비와 맞물려 1897년 10월 12일에 시행되었다. 그리하여 황제즉위식을 거행한 뒤 국장 준비가 급속도로 진행되었다(신석호 외 8인, 1969: 103).

이로부터 대한 제국시대가 시작되고 왕후는 황후가 되어 그해 11월 21일 그 영구가 인화문을 나섰다. 그로부터 회상하여 보면 대한제국 전기에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파란을 겪던 왕실과 조정은 자주적인 길을 가려고 노력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러일 전쟁이후 한반도는 일본의 침략 의도에 따라 황실호위제도마저 일본의 통제아래 들어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도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일본의 침략의 마수가 뻗혀왔던 시기였다. 후기에 들어서는 일제가 국권을 침탈할 목적으로 황실의 호위를 틀어잡고 좌지우지하였기 때문에 겉으로는 평온을 유지했으나 대한제국은 실제적으로 거의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황제권을 군사적 측면에서 강화하기 위하여 1899년 6월에 원수부가 설치되어 황제권을 제약하려는 움직임에 맞서게 되었다. 이 원수부는 중앙에 친위대, 시위대가 편성되고 지방에 진위대와 지방대가 편성됨으로써 1904년 군대 강제 해산까지 대한 제국 최고 군령기관으로서 위상을 유지했다(서인한, 2000, 281-293).

친위연대는 연대본부와 제1, 제2, 제3대대로 편성되었고, 친위 제4, 제5대대는 독립대대로 남게 되었다. 지금까지 독립대대로 있던 시위대대와 친위대대가 연대편제로 묶어지고 종래의 단순한 보병부대에서 화기부대까지 배속을 받음으로써 모든 부대가 전투부대로 강화되었다. 시위대가 연대로 편성된 것은 1898년 5월 27일이었고, 그 아래에 제1대대와 제2대대가 소속되었다. 그리고 7월 2일 시위연대에 포병 1개 중대가 배속된 이후 증편되어 1900년 12월 9일에는 시위포병은 2개 대대가 되었다(서인한, 2003: 187).

1900년에 군악대 2개 소대가 창설되어 1개 소대는 시위연대에 부속시키고 1개 소대는 시위기병대에 부속시켜 시위연대는 보병 2개 대대와 포병 1개 대대 그리고 군악대 1개 소대를 갖춘 전투대로 편성되었다.

1900년 12월 9일에는 시위기병대가 독립부대로 창설되어 시위기병대대는 4개 중대, 4개 소대로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1개 군악 소대가 배속되었다. 친위대대도 1898년 5월 27일, 시위연대편제에 따라 친위연대로 편성되고, 1900년 12월 19일에는 친위연대에 공병 1개 중대와 치중병1개 중대를 배속시켰으며, 공병 1개 중대와 치중병 1개 중대는 각각 3소대로 편성되었다. 이러한 포병, 공병, 치중병 등을 신설 배속시켰고, 각 연대에 각각 1개 대대씩

가설하여 2개 연대로 편성하였다. 그리고 시위기병대대는 시위 제3대대로 개편하였으나 1907년에 일제에 의해 군대가 해산됨으로써 국가와 종묘사직을 수호할 수가 없게 되었으며, 해산된 군인들은 의병활동에 참여하여 독립투쟁운동을 벌이게 되었다.

대한제국의 호위조직은 황실 중심의 경위원(警衛院)과 황궁경위원(皇宮警衛局)으로 바뀌었다. 갑오경장이후 호위조직에 많은 변천이 있어서며 호위임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1905년 11월(달포 제77호)에 경위원(警衛院)이 설치되었다. 경위원의 직원은 총관(總管)1인을 두되 책임관으로 보하고 그 밑에 경무국장 1인, 경무관 7인, 총순 16인과 주사 6인을 두었다(박범래, 1988: 152). 경위원의 행정절차는 총관(總管)이 직접 왕의 재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총관의 지위는 각부·부·원 장관과 평행으로 문서를 조회할 정도의 지위의 특수성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김두현, 1995:119).이러한 상황에서 미루어 볼 때 대한제국의 성립은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나라를 유지하려는 고종의 뜻이 바탕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경위원은 을미년에 창설된 경무청 관하의 황실 내 경찰의 후신인 것 같았으나 소속이 경무청에서 황실내부로 바뀌었고 일반경찰에서는 제외되었으나 황실에서 내·외곽 경비와 수위 그리고 수상한 자와 범법자를 체포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서는 오늘날 경호·경비경찰의 업무임이 분명하였다. 그러나 경위원은 그 후 수차 개정되어 정원이 증가하다가 결국 1909(광무 9)년 3월에 폐지되었다.

1909(광무9)년 3월 4일(포달 제126호)에 경위원은 관제개혁에 의하여 황실내부 주전원(主殿院) 내의 황궁경위국(皇宮警衛局)으로 개편되었고 이것도 업무상으로는 현재의 경호·경비 업무임이 틀림없다. 한일 합방 후 경무부와 경찰서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지역을 변경하여 발표한 중에 내용은 황실내부 소속 황궁경위국을 통합하여 경무 통감부 아래에 8개 경찰서를 두고 그 가운데 황국경찰서를 설치하여 북서와 서서로 관할구역을 구분하였다(김두현, 1995: 20). 여기서 일본의 치밀한 침략정책이 드러나 보이는데 이는 매우 점진적인 변화로써 이런 수법이 제국찬탈의 보이지 않는 수법이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1910년 5월에야 일본은 육군대신 데라우찌 마사타케(寺內正毅)를 새 통감으로 임명하고, 2천여 명의 헌병을 데리고 들어와 경찰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최후의 야욕을 보여주었다.

IV. 결 론

구한말의 호위제도는 개항 이후 열강의 침략이 국권상실의 우려가 있는 가운데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여 국가를 방전시켜보자는 개화와 수구의 양파가 세력을 다투는 국내사정 속에서 이루어진 임시변통적인 성격이 있었던 반면에 일본이 청나라와 러시아 세력을 물리치고 한국

을 독점하려는 의도가 더 짙어진 시대에 대한 제국이 선포되고 제국의 군사제도를 수립하여 왕실 호위를 더욱 굳건히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개항 이전으로 10년 더 거슬러 올라가 1863년 고종의 즉위로부터 1910년 한일합방으로 인한 국권이 상실될 때까지의 제도를 가리킨다. 대원군 집정 10년 동안에는 세도정치가 물러나고 과감한 개혁정치와 군제개혁으로 왕권의 권위가 상승했다. 그러나 민비와의 갈등으로 대원군의 실각이후 고종의 친정을 거치는 동안 많은 변동이 있었고, 열강들의 간섭과 개화와 수구로 나뉘어 국론이 통일 되지 못하여 갈팡질팡하였던 구한말의 정국의 영향으로 나라를 잃게 된 비극을 맞게 된 시대의 제도로 남게 되었다.

고종이 친정하는 상황에서 고종은 왕실 호위에 힘을 기울였다. 기존의 호위제도에서 우수한 병력을 뽑아 무위소를 조직했으며, 이 조직은 점점 세력이 커져 왕실 호위뿐만 아니라 군사문제 전반에 걸쳐 통할하게 되어 무위도총사가 금위영・어영청・훈국 등 3명의 제조를 겸임하고 나아가서 용호영과 총융청까지도 통할하게 되었다. 그 결과 국가재정의 낭비를 방지하면서도 왕의 신변이 보호되는 효력이 있었다. 유명무실한 제도상의 인원을 재배치했기 때문이다.

그 뒤 종래의 5군영 중 훈련도감・용호영・호위청을 합해 무위영으로 하고 나머지를 합해 장어영으로 하여 2군영 제도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밑에 각초관(各哨官)을 두어 군병을 통솔하였다. 이렇듯 당시의 무위소는 단순한 파수꾼이 아니라 고종의 친위군적 성격을 띠면서 전체 군무를 통할하게 되었고 국왕을 중심으로 한 군의 중앙집권적 개편에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무위영은 그 명칭이나 구성으로 보아 무위소의 연장으로 왕실을 지키는 친군 내지는 근위군적인 것이었고, 장어영은 수도방위부대 성격의 것이었다. 2군영제의 개편과 별기군의 조직으로 막 신식군제로 전환하려 했으나 다음해에 있었던 임오군란으로 좌절되었다. 신식군대를 창설한 것은 좋았지만 구식군대의 대우에 소홀했던 군사제도 개편의 허점이 호위제도의 발전을 저해했던 교훈으로 남아 있다.

국왕의 호위대인 용호영이 금위영・어영청・총융청과 함께 친군 4영에 분할 이속되어 해산되자 중앙군의 4영 체제는 모든 중앙군, 특히 왕실의 호위군까지도 이에 속하게 되었다. 일본의 세력이 강해지자 왕실의 호위를 자기들이 맡으려 하였고, 고종은 일본에게 왕실호위를 맡기고 싶지 않았으나 일본은 청국과 러시아의 세력을 물리친 이후 무력적 행사로 노골적인 국정 간섭과 황후까지 시해할 정도로 패권을 장악하기 시작하였다. 고종의 노력이 처절할 만큼 절실했으나 국력의 약화로 뜻을 이루지 못했던 제도의 한계를 깨닫게 한다.

이렇게 되자 구황실의 애국군사들은 독립군에 편성되는 등 흩어지게 되고,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파란을 겪던 황실과 조정은 청일전쟁 이후부터 일본의 입김이 거세졌고, 갑오개혁이

동학운동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일본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이 일본침략에 유리해졌다. 일본의 침략행위에는 항상 열강의 견제가 팽팽히 맞섰으나 러일 전쟁 이후 한반도는 일본의 침략 의도에 따라 황실호위제도마저 일본의 압제 아래 들어가게 되었다.

경위원은 대한제국말기의 호위조직으로서 1909년까지 지속적으로 경호·경비경찰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경위원의 행정절차는 총관이 직접 왕의 재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총관의 지위는 각부·부·원 장관과 평행으로 문서를 조회할 정도의 지위의 특수성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대한제국의 외교·내정 그리고 군대마저 빼앗은 일제는 마지막으로 국가의 상징으로 남아 있는 황제마저 퇴위시킴으로써 대한제국을 일본의 영토로 편입시키는 일에 나서게 되었다. 우리는 구한말의 호위제도를 고찰함에 있어 국력이 뒷받침하지 못하는 호위제도는 실효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때의 국력이란 단순히 무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한말의 호위제도는 궁궐이나 왕실 호위만이 아니고 국가를 수호하는 차원에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 시대의 호위제도에 대한 고찰에서 얻은 교훈은 위기에 닥쳤을 때 국론이 통일되고 군관민이 단합하여 국가를 수호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만 있다면 그 이상의 국력소모는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국왕의 최측근 군사조직으로서의 호위조직이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고찰에 대하여는 차후의 연구 분야로 남겨두고 전망하기로 한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김 홍(2003).『한국의 군제사』. 학연문화사.
김두현(1995).『경호학개론』. 서울: 쟁기.
_____(2002).『경호학개론』. 서울: 백산출판사.
김세은(1991). 개항이후 군사제도의 개편과정, 군사, 제22호.
김영자(1997).『조선왕국 이야기』. 서울: 서문당.
김창호(2006).『한국경호발달사』. 서울: 백산출판사.
박범래(1988).『한국경찰사』. 경기: 경찰대학.
박영규(2006).『조선왕조실록』. 대전: 웅진싱크 빅.
박준석(2006).『경호학의 이해』. 서울: 백산출판사.
배항섭(1999).『고종친정 초기 군사정책과 무위소』. 군사관논총.
변태섭(2001).『국사통론』. 서울: 삼영사.
서인한(2000).『대한제국의 군사제도』. 서울: 혜안.
_____(2003).『한말 군 근대화 연구』. 서울: 혜안.
신석호 외 8인(1969).『한국현대사 1권』. 시련에 선 왕조. 서울: 신구문화사.
심헌용(2005).『한말군 군대화연구』. 서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양상현(2006). 대한제국의 군제 개편과 군사 예산 운영.『역사와 경계』, 19,「한국역사연구회」.
유홍렬(1969).『한국현대사 강화에 온 서양함대』. 경기: 신구문화사.
육군본부(1968).『한국군제사 근세조선후기편』. 경기: 보진재.
이민형・이강문・송상욱・김진환(2008).『한국경호사강의』. 서울: 진영사.
이충수(1997). “조선왕조시대 시위제도의 사적고찰”.「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_____(2004). “조선시대 시위제도 변천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대학원 .
장철원(2003). “한국 경호제도 변천사 연구”.「박사학위논문」, 우석대학교 대학원.
정구복(1977). 갑오개혁이후의 신군제.『한국군제사-근세조선후기편』.
조재곤(1996). 대한제국기 군사정책과 군사기구의 운영.『역사와 현실』 제19권.
진단학회(1980). 한국사, 서울: 을유문화사
차문섭(1973). “구한말 육군무관학교연구”.『아세아연구』, 50.
_____(1982). “구한말 군사제도의 변천”.『군사』, 5,「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_____(1996). 조선말기 및 대한제국의 중앙군제.『조선시대 군사관계연구』단국대출판부.
차준회(1964). 한말 군제개편에 대하여.「역사학보」, 22.
최병옥(1987). “개화기의 군사정책연구”.「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_____(1990). “조선말기의 무위소 연구”.『군사』. 21.
_____(2000). 개화기의 군사정책연구, 경인문화사.

최효식(1995).『조선후기 군 제사 연구』. 서울: 신서원.
허동현(2000). 근대 한일 관계상구, 국학자료원.
홍경만(2000). 한국근대 개신교사 연구, 경인문화사.
황병무(1967). “일본이 시행한 군사개혁과 경군”.「육군사관학교논문집」, 5.

Abstract

A Study on the Guard System in the Last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Lee, Sung-Jin

The guard system in the last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established at the time of the struggle of invading world powers and the loss of the Dynasty rights, was strengthened to protect the Royal family and the Dynasty from the attacks of foreign powers.

While investigating both the military system and the guard system from the beginning of King Gojong's direct royal governing to the time of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we realize that the Joseon Dynasty not only lost the support of the public but also had little power to cope with the aggression of foreign countries.

The reformation and strengthening by Daewongun, King Gojong's father, was made in preparation for King Gojong's direct royal rule. Nevertheless, the intervention of foreign countries in the domestic affairs of the Joseon Dynasty got worse. As opposed to their intervention, Queen Minbi had engaged in politics, which resulted in murderous attempts on her.

The Joseon Dynasty had tried to reform and intensify the guard system. New names such as Muwiso, Chingunyeong, and Siwidai, had been given respectively. Such reformation and intensification had little effect because of two successive victories at the Sino-Japanese War and the Russo-Japanese War of Japan. Japan occupied the Joseon Dynasty by force after all. The guard system of Daehan-jeguk(the Empire of Korea) was eventually incapacitated; an army in the cause of justice was raised instead. However, The state of things and the guard system at that incapacitated period gives a good lesson for the establishment of a modern guard system at the present day.

Key Word : Guard System, the Last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Muwiso, Chingunyeong, Siwidai.

논문투고일 2009.10.31, 심사일 2009.11.13, 게재확정일 2009.12.18